



■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본 교안은 초등부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을 목주 기도 성월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10월이면 목주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신자들은 목주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 10월에는 주일학교 교리에도 목주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목주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지시에 맞추어 따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목주기도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기도를 바치게 하려면 반드시 어린이들의 이해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안에서는 목주기도의 의미, 기도를 바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려고 합니다. 또한 목주기도를 바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성모송'에 대해서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단 한 차시 수업으로 목주기도와 성모송을 완벽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목주기도를 드리는지, 목주기도와 성모님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목주기도 1단을 함께 바쳐 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시작 기도

성모송(교사가 한 구절을 말하면 어린이들이 소리 내어 따라하는 방식으로 기도한다.)

도입

인사 (수업으로 이끌기)	이번 주도 즐겁게 지냈어요? 선생님은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서 더욱 즐거운 한 주였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이 목주 팔찌예요.
목주기도, 목주 기도 성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팔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목주기도' 라고 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10월을 목주기도 드리는 달로 지정해 놓았어요. 물론 목주기도를 10월에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10월에는 목주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목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의 기도문이 아니예요. 여러 기도가 묶여져 하나의 기도를 이루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목주기도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목주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 학습목표

- 목주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목주기도 드리는 방법을 알고, 기도를 바칠 수 있다.

■ 준비물

- 그림책
- ① 『어린이가 바치는 목주 기도』(글· 줄리에트 르비비에, 그림· 안느 그라비에, 으뜸사랑, 2009년)
- ② 『사랑해요, 성모님』(글· 조셉 코디나, 그림· 로저 리우스, 생활성서, 2003년)
- 수업 재료(5단 목주 그림, 1단 목주, 5단 목주, 목주 팔찌, 목주반지)
- 활동 재료(전지 여러 장, 1단 목주 도안)
- 만들기 재료:색깔이 예쁜 구슬(한 사람당 큰 구슬 15개, 작은 구슬 5개), 십자가, 우레탄 줄(늘어나는 투명 줄), 강력 접착제, 가위
- ※5단 목주 그림, 1단 목주 도안은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개

1. 그림책 소개

1) 『어린이가 바치는 묵주기도』

묵주기도와 성모님의 관계, 묵주기도의 여러 가지 신비들, 묵주기도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 묵주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다.

2) 『사랑해요, 성모님』

성모송의 각 구절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성모송은 묵주기도에서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인 만큼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드린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두 권 모두 크기가 작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 권 준비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2. 어린이들과 함께 읽는 책 - 『어린이가 바치는 묵주기도』

5쪽	※ 『어린이가 바치는 묵주기도』5쪽을 보고 한 단락씩 돌아가며 큰 소리로 읽는다.(어린이들이 한 단락씩 읽은 후 교사는 간단히 설명해 준다.)
첫 번째 단락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하늘 나라에 계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단락	성모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곁에서 도와주신답니다.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단락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요. 그리고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느님께 전달해 주신답니다.
네 번째 단락	‘로사리오 기도’는 묵주기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모님께 장미 꽃다발을 선물하듯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묵주기도를 바쳐 보아요.
다섯 번째 단락	우리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는 성모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6쪽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묵주기도의 ‘신비’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신비’ 처럼 그저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묵주기도의 신비를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닮을 수 있게 되요. 어때요? 묵주기도의 신비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	묵주기도의 신비는 4가지(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이고, 각 신비는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 묵주기도 하는 방법

※아래의 설명을 하기 전, 아이들에게 5단 묵주를 실제로 보여 주고, ‘5단 묵주 그림’을 칠판에 붙인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묵주의 한 단은 열 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묵주는 일반적으로 다섯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단이 곧 묵주기도 한 번을 뜻해요.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10개의 구슬은 성모송 10번을 뜻해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드리는 동안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성모송이에요. 그리고 성모송 외에도 성호경,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각 구슬마다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살펴볼게요.(붙여 놓은 ‘5단 묵주 그림’을 짚어 가며 설명한다.) 먼저 십자가에서 성호경을 긋고 사도신경을 1번 바쳐요. 첫 번째 큰 구슬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구슬 3개에서는 성모송 3번, 그 다음 큰 구슬에서는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비가 시작되는데, 성모님이 그려져 있는 이음매 부분에서 ‘...의 신비 1단’과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이어진 10개의 구슬에서는 성모송 10번 드려요. 그리고 다시 큰 구슬이 나오면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 ‘...의 신비 2단’,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요. 이러한 순서로 총 5단을 바치면 묵주기도를 1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테지만 직접 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4. 어린이들과 함께 책 읽기-『사랑해요, 성모님!』

묵주기도에서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는 성모송입니다. 『사랑해요, 성모님!』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성모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어린이들과 한 쪽씩 소리 내어 읽은 후 필요한 부분은 교사가 적절히 설명해 줍니다.)

5. 활동 1 묵주기도 바치기

※ 수업 중 아이들과 묵주기도 1단을 바친다.

□ 준비물

전지 여러 장, 1단 묵주 도안

※전지에 1단 묵주 도안을 그린 다음 오린다.(아이들이 묵주 한 알에 한 명씩 앉을 수 있도록 크게 자른다.)

□ 만드는 방법

- ① 각각의 묵주 알마다 담당자를 정한다.
- ② 십자가, 작은 구슬 담당자에게 올려 놓은 전지를 나누어 준다.
- ③ 교사는 성모님 이음매 부분을 교리실 바닥의 적당한 위치에 놓는다.
- ④ 어린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를 알맞은 위치에 놓고 그 자리에 앉는다.(어린이들 자신이 묵주



알이 되는 것이다.)

⑤ 기도를 시작하면 목주 알마다 담당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를 바친다.

6. 활동 2 목주 팔찌 만들기

□ 준비물

색깔이 예쁜 구슬(한 사람당 큰 구슬 15개, 작은 구슬 5개), 십자가, 우레탄 줄(늘어나는 투명한 줄), 강력 접착제, 가위

□ 만드는 방법

- ① 우레탄 줄을 적당한 길이(25-30cm)로 잘라 나누어 준다.
- ② 우레탄 줄에 십자가, 작은 구슬, 큰 구슬을 그림과 같은 순서로 끼워 넣는다.
- ③ 구슬을 모두 낀 후 우레탄 줄의 양끝을 서로 묶고 강력 접착제를 바른다.(접착제를 바르지 않으면 우레탄 줄이 풀려 버린다.)
- ④ 접착제가 마르면 남은 줄을 잘라 깔끔하게 마무리 한다.

※수업이 끝난 뒤 신부님을 초대하여 목주 팔찌를 축성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리

수업 정리

많은 사람들이 목주를 가지고 다니거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반지와 팔찌로 하고 다니는 것은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만든 목주 팔찌를 그냥 끼고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팔찌를 사용해서 자주 목주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신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분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목주기도를 혼자 바치는 게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목주기도를 드려 보아요. 금세 혼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교리 때까지 목주기도를 매일매일 드릴 것을 약속하며, 우리가 목주기도를 할 때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성모님을 위해 마침 기도로 성모송을 바쳐 보아요.

마침 기도

아이들과 함께 성모송을 바친다.

김두심_엘리사벳
 독서교육 전문가, 북아트 전문가, 서울대교구 도림동과 월계동 성당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6년 동안, 지구 월례교육 강사로 1년간 봉사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톨릭 디디케 교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